

# 한국-러시아 가스관 현실화 협력

## 한국서부발전은 열병합발전소 건설 ... 에너지 효율화 협력도 강화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10월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장관급 <제11차 한국-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스관 설치 및 러시아 카프카즈 열병합발전소 건설 협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0월17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담당국장 등 40여명이, 러시아에서는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 9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서명한 <러시아 PNG 로드맵>에 따라 북한을 통과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설치가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러시아의 북 카프카즈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전력망 연계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벌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에너지관리공단과 러시아 에너지청이 12월 모스크바에서 <한국-러시아 에너지 효율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번의 나로호 발사 실패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3차 발사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그밖에 금융과 농수산업, 보건복지 부문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한국-러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7>